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의 인식  
및 교육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강 문 석

2016년 12월

#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의 인식 및 교육실태 분석

지도교수 한 석 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강문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정 진 현 (인)

위 원 염 미 경 (인)

위 원 한 석 지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2월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제주도 중학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교육실태를 분석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2001년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여 12해리 영해를 제외한 양국 간의 수역은 공동어로 수역으로 잠정 조치하여 추후에 양국 간에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논의가 있어 왔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한중 양국은 좁은 협을 사이에 두고 있어 각기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어도는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중첩되어 있는 수역에 위치하여 이를 어느 국가에 포함할 것인가가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국은 이어도가 평균 해수면 아래 4.6km에 잠겨 있어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중 암초로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를 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는 마라도로부터 149km에 위치한 반면에, 중국의 유인도인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 287km, 무인도인 퉁다오(童島)에서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 쪽에 훨씬 가깝게 있어 양국의 협상 결과 우리 쪽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이어도해양종합기지가 이곳에 설치되어 관리 중이다. 중국은 인구 및 국토 비례를 통한 경계획정 주장과 근거가 없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자국의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결과 국제법상 명분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이어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과교육과정에서 이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어도 관련 선행연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 사회과 성취기준에는 영토, 영해 및 독도 관련 내용은 있지만 이어도 관련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주로 중3학생들이 배우는 사회② 교과서에 이어도 관련 기술은 본 단원에 없고 참고내용으로만 잠깐 소개되어 소홀히 다루거나 학습하지 않고 그냥 지날 가능성이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사회과부도에 등장

한 이어도 지도는 마라도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도상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다수 출판사가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이어도 논문과 관련단체의 연구 및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서의 이어도교육이나 중학생의 이어도 인식 정도 및 교육 방안을 조사하고 모색하는 연구물은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진행될 관련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어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방안 모색은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갖고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3학년이 1,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지역 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비해서 이어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교적 낮고 학교 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을 받은 정도가 매우 낮았지만, 대체로 이어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이어도를 들어본 경로는 TV나 신문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선생님께서 부터 알게 되었다는 학생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넷째,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이어도 교육은 관련교과 수업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적당한 교과가 사회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지만, 한중간의 EEZ 경계획정과 일본의 EEZ 정책 및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중국의 정책에 대하여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서 대체로 주변국가의 영토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이어도 교육이 실시된다면 이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추후에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한 대상은 제주도내 중학생이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는 이어도에 근접한 제주도의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여건이 관련되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전국 단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어도 관련 사회과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의 성공가능성을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어도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과뿐만 아니라 과학과의 종합해양과학기지, 국어과의 전승문학, 음악과의 민요 등 이어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어도에 대한 인식 부족은 교사 자신이 이어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이어도의 인식도를 알아보는 연구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어도 관련 단원이 없고, 성취기준에도 이어도가 없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지만,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독도교육처럼 위치, 면적, 역사, 국제법상의 지위, 생태환경, 가치 등의 이어도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어도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지름길은 학교에서 일정기간 실제 교육을 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 문제점, 가능성을 점검하여 이어도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산하여야겠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및 범위 .....	6
<b>II. 이론적 배경</b> .....	8
1. 용어의 정의 .....	8
2. 우리나라 중학교 이어도 교육 실태 .....	10
3. 선행연구 고찰 .....	18
4. 시사점 .....	23
<b>III. 연구방법</b> .....	25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석 방법 .....	25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	28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29
1. 이어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9
2. 이어도 교육실태 .....	33
3. 이어도 교육 주요 변수의 기초분석 .....	37
4. 이어도 교육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비교분석 .....	42
5. 이어도 교육 변수 간 상관분석 .....	50
6.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대한 회귀 분석 .....	51
7. 분석 결과 .....	52
<b>V. 결론 및 제언</b> .....	55
참고문헌 .....	58

부 록 .....	61
영문 요약(Abstract) .....	70



## 표 차례

<표 1> 이어도와 해양영토와 관련된 선행연구	18
<표 2> 양덕순(2011)의 설문문항	21
<표 3> 본 연구 설문 영역과 문항 개수 및 양덕순 설문 문항 반영 여부	22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6
<표 5> 신뢰도 검증	28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의 차이	30
<표 7> 이어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정도	32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의 차이	34
<표 9> 이어도 교육의 실태	36
<표 10> 이어도 교육에 포함될 내용의 필요도	38
<표 11> 이어도 교육 방법의 필요도	39
<표 12>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40
<표 13>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41

<표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차이 .....	43
<표 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차이 .....	45
<표 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차이 .....	47
<표 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차이 .....	49
<표 18>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	50
<표 19> 이어도 교육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51

## 그림 차례

(그림 1) 남중국해 주변국 영유권 분쟁 지역 .....	2
(그림 2) 이어도의 위치 .....	3
(그림 3)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EEZ .....	3
(그림 4) 일본 소학교 해양교육 기본 모델 .....	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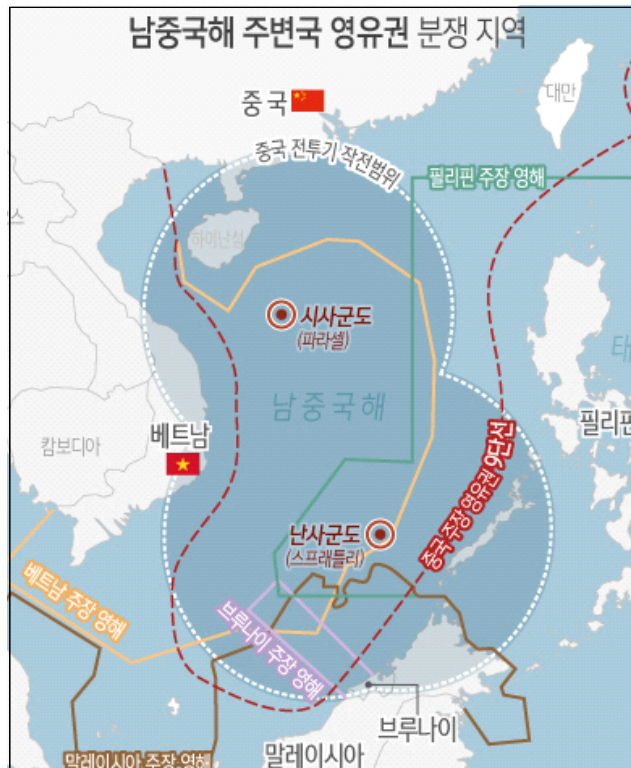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남지나해) 영유권 중재 결과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9단선<그림 1 참조>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중국이 조성하는 이 수역의 인공섬도 ‘섬’이 아닌 만조 시에 수몰하는 ‘암초’라고 인정해 이 수역에 조성된 인공섬을 근거로 주장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sup>1)</sup> PCA의 판결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A의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간의 EEZ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주장하는 논리의 상당 부분이 이 판결로 설득력이 약화될 것이다. 인구와 국토 면적 비례, 모호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 인접 국가 간의 수역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판결로 부정되었으며, 만조 시에 수몰되는 암초를 영해기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12해리 영해를 제외한 양국 간의 수역은 공동어로 수역으로 잠정조치하고 추후에 양국 간에 EEZ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이다. 「한중어업협정」은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잠정적 성격의 협정으로, 추후에 양국 간의 EEZ를 확정하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1996년부터 지금까지 EEZ 경계획정 협상을 16차례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sup>2)</sup>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이 이어도 관할권 문제이다.

1) 조선일보, 상설중재재판소 "中, 남중국해의 구단선(九段線) 법적 근거 없다", 2016.7.13.

2) 매일경제, 한중 EEZ협상 재개...오늘 첫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2015.12.22.



(그림 1) 남중국해 주변국 영유권 분쟁 지역

이어도는 평균 해수면 아래 4.6m에 잠겨 있어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중암초이다. 따라서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양국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를 본 적이 있다. 다만, 한국은 이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EEZ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 남단으로부터 149km에 위치한다. 반면에 중국의 유인도인 서단다오(余山島)를 기점으로 할 때는 훨씬 거리가 떨어진 287km에 있다. 해양 경계 기점으로 삼을 수 없는 무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통다오(董島)에서 247km 떨어져 있어 <그림 2>처럼 우리 측에 훨씬 가까이에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중국보다는 우리 영토와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을 폈고,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자국의 EEZ가 보다 동쪽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어도의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한국에서 주장하는 EEZ와 중국에서 주장하는 EEZ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2) 이어도의 위치



(그림 3)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EEZ

중국의 인구 및 국토 비례를 통한 경계획정 주장과 무인도를 기점으로 한 경계협정 주장은 최근의 PCA 판결로 더 이상 획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주장이 되어 버렸다.

이어도는 EEZ를 통한 자원의 독점개발 및 해상교통로 확보와 기상 관측 등 우리나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지만, 2003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어도는 전설의 섬으로, 중국과 분쟁이 있는 지역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1년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주관으로 이어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고, 관련 이어도 연구단체가 설립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2011년에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연구한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II’에 실린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양덕순, 2011)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에서의 이어도 관련 교육이 어느 정도 있어왔는지, 이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어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이어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이어도 관련 인식 정도 및 교육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어도 관련 인식의 실태정도를 조사·분석한 연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없는 상황에서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의 인식과 교육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학교의 해양영토교육과 이어도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 2) 연구의 목적

국가 영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 국민적 의식의 고취는 어느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학교에서의 해양영토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용되는 우리나라 전도는 실제보다 매우 축소된 육지 위주의 지도를 사용함으로써 일본과 중국과의 경계 협상 쟁점지역인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제한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도와 그 주변해역이 우리의 관할권에 속하며,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를 중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주변국가에서 해양영토교육을 강화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건데 이와 관련된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 될 것이 자명하고,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영토교육은 더 이상 이웃국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어도와 관련된 역사적, 국제법적 사실을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영토교육은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고, 해양영토교육이 중학교교육과정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중학생의 인식 및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향후 본격화될 해양영토 분쟁에 대해 대비하고 이어도 교육방향을 모색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며, 이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 2. 연구 문제 및 범위

### 1) 연구 문제

제주도내 중학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과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과 중학교 사회과과서 및 사회과 부도에 이어도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제주도 중학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제주도 중학생의 이어도 교육의 실태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제주도 중학생의 이어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어떠한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가?

다섯째,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 2) 연구 범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어도 및 해양영토에 대한 연구물을 고찰한다. 이어도의 역사적 유래, 법적 지위, 가치 등의 상황 및 주변 국가와의 논쟁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의 인식 및 교육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셋째, 중학교에서 사회교과에서 이어도교육의 상황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의 성취기준과 성취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교과서 및 사회과부도의 이어도 관련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넷째, 조사 대상은 제주도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범위를 정하겠다. 제주시 동지역,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등 4개 학교군으로 나누고, 남녀별로, 학년별로 나누어 조사하려고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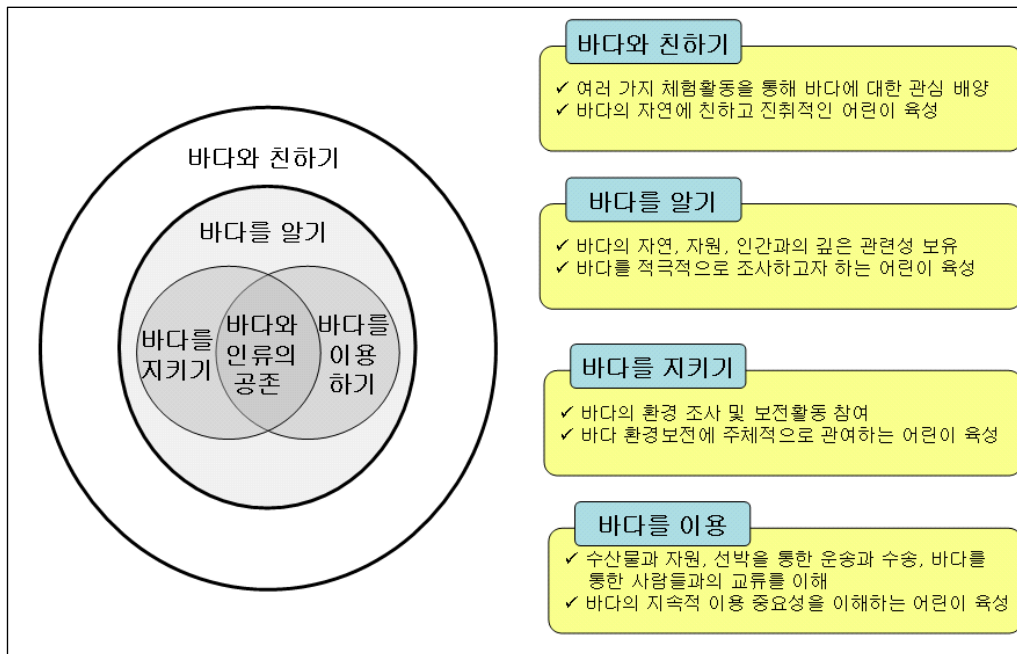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였다.

#### 1) 해양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시사점」을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sup>3)</sup>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가) 일본에서 바다의 중요성, 나) 바다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 다) 일본에 요구되는 제도 등 3가지 측면에서 통합 해양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를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해양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과 인류는 공생관계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해양교육의 기본 모델<그림 4>은 바다를 가까이 하고(親), 바다를 알며(知), 바다를 지키고(守), 바다를 이용하는(用) 학습이라 하였다.

해양교육이란 해양과 인류는 공생관계라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바다에 친화적이고, 바다와 인간과의 관련성을 진취적으로 조사하고, 바다 환경 보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바다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심을 갖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도 해양교육을 통하여 해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갖는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 주변의 바다를 소중하게 여기며,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바다 중심의 사고를 통하여 바다를 이해하고 바다를 바르게 이용하는 인식을 가져야겠다.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시사점', 『해양수산동향』 1261호, 2008. p.1.



(그림 4) 일본 소학교 해양교육 기본 모델 - 출처: 『해양수산동향』 1261호, 2008.

## 2) 이어도 교육

해양영토는 좁게는 한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바다로서 영해, 접속 수역, EEZ, 대륙붕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넓게는 개별 국가가 독점적으로 탐사, 개발권을 가진 심해저와 과학기지를 포함하고 있는 극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영토의 의미를 한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바다로 한정하여 그 범위를 영해와 접속 수역, EEZ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해양영토교육이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인 영해와 접속 수역, EEZ 및 대륙붕의 개념을 이해하고,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교육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독도 교육,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중간수역,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잠정조치수역, 이어도 등이 해양영토교육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이다. 본 연구는 해양영토 중에서 이어도에 국한하여 이어도 존재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학교 현장에서 이어도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해양영토교육이란 사실상 이어도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어도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알며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도 교육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우리나라 중학교 이어도 교육 실태

###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에 제시된 영토관련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영토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토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내용,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의 사례 및 원인 탐구,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사91131.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알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사91131.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	상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역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중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
		하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사91132. 영토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탐구할 수 있다.	사91132. 영토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상	영토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 간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중	영토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하	영토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사91133. 독도의 중요성을 영역·경제·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91133. 우리 국토에서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영역·경제·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상	우리 국토에서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영역·경제·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우리 국토에서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영역·경제·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	우리 국토에서 독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성취기준이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수업 또는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교과의 성취기준은 교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목표와 내용의 상세화 작업을 거쳐 해당 학년에서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진술된 교수·학습 체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성취기준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활동의 양을 관리하는 준거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수행 수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한 수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표의 내용처럼 교사는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의 영역을 가르칠 수 있으며, 교과서에도 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성취수준은 학생들이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성취수준 기술은 각 수준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각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진술문이다. 교사는 학기 초에 성취수준 기술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발된 성취수준에 대한 기술은 성취기준의 성취 정도를 상, 중, 하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이는 수준별 학습, 서술형 및 수행 평가의 채점 기준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up>4)</sup>

위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통해 교사는 독도에 관한 교육은 물론 이어도 또는 이어도 해양 종합 과학 기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 교과서 또는 사회과부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독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독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이어도는 언급되지 않아 이어도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교사의 이어도 교육도 성취수준에 구체화된 것이 없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중학교 사회』, 2012.

2) 중학교 사회 교과서 및 사회과부도에 기술된 이어도 관련 내용

다음은 2014학년도 1학기 발행된 몇 개의 사회과교과서에 기술된 이어도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1)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의 이어도 관련 내용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는 지리 부분과 인구·도시 문제, 문화·사회생활, 정치, 경제 영역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이어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할만한 적절한 영역은 지리 부분의 ‘자연재해와 인간생활’과 우리나라 지도 부분이다. 그러나 교과서 본 단원의 내용에서 이어도를 언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부록에 있는 우리나라 전도에서 이어도를 표기한 출판사가 있었지만 그 위치가 제주도 오른쪽 쪽에 있었으며, 이어도의 위치를 위도·경도 표시만 하고 마라도와의 거리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정도 언급도 한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부실한 자료 내용을 통해 수업에서 제대로 된 이어도 교육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생들이 이어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깊은 학습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누군가 의도적인 이어도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중학교 사회① 과정(주로 1학년 과정임)에서는 이어도에 대한 지식을 조금도 얻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출판사	관련 쪽수	지도 제목	기술된 내용	특이사항
A	없음	이어도 관련 지도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B	없음	이어도 관련 지도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C	없음	이어도 관련 지도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D	부록 294, 295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우리나라의 지형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제주도 오른쪽 옆에 표시	1 북위·동경 표시를 분(〃) 단위 표현 2. 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없음

## (2) 중학교 사회② 교과서의 이어도 관련 내용

중학교 사회② 교과서는 대체로 3학년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서로 주요 내용은 문화의 다양성, 세계화 시대와 글로벌 경제, 자원의 개발과 이용, 우리나라 영토, 지속가능한 환경, 통일 한국, 법, 경제, 국제사회 등으로 대단원이 나누어져 있다. 이중의 ‘우리나라의 영토’ 단원에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하여 이어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독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② 교과서에는 이에 관한 충실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회② 교과서의 이어도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독도에 관한 내용은 별도단원을 설정하여 독도의 위치, 역사, 가치 및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어도 관련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인지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었다. E 교과서는 관련 참고자료형식으로 이어도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어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없었다. F 교과서는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 난사군도 분쟁 등에 대한 내용과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잠정 조치 수역을 설명하는 지도 자료에도 이어도 표시는 빠져 있다. 반면에 G 교과서는 이어도의 위치를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의 거리를 각각 제시한 지도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한 페이지에 걸쳐 ‘전설의 섬 이어도가 해양영토전초기지로 다시 태어나다’ 제목으로 상세 설명하고 있어 이어도에 기술이 비교적 충실하였다. 본 단원에서 이어도를 소개한 교과서는 한곳도 없었으며, 관련 참고자료에서 이어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내용이 빈약하고, 오히려 주변국가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에 중점을 두는 교과서가 대다수였다.



출판사	관련 쪽수	지도 제목	기술된 내용	특이사항
E	111	이어도 관련 지도 없음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EEZ 관련 지도에는 이어도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별도자료로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를 소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도와의 거리를 언급</li> <li>2. 수중암초이며 그 위에 과학기지를 설치한 사진 제시</li> <li>3. 제주도민의 전설과 관련 내용 간략 소개</li> <li>4. 우리나라 EEZ 내에 위치한다고 언급</li> <li>5.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기상관측 및 과학탐구활동을 수행함을 소개</li> </ol>
F	없음	이어도 관련 지도 없음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나라 영역의 이해’ 단원 (pp.108~109)에서 EEZ 및 한중 어업협정과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이어도 관련 내용의 기술이 없음</li> <li>2. ‘땅과 바다를 둘러싼 갈등’ 단원 (pp.109~110)에서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와 난사군도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 내용은 있으나 이어도 관련 내용 없음</li> </ol>
G	127	이어도의 위치를 마라도에서의 거리와 중국 서산다오와의 거리와 일본의 도리시마와의 거리를 비교한 지도 제시	한쪽 전면에 ‘전설의 섬 이어도가 해양영토전초기지로 다시 태어나다’ 제목으로 상세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어도 관련 민요 소개</li> <li>2. 이어도가 마라도와 중국 서산다오, 일본 도리시마 거리를 각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가깝다고 설명</li> <li>3. 이어도 탐사 연혁 소개</li> <li>4. 이어도가 수중암초가 아니라 해양 영토를 확보하려는 각축의 현실의 섬이 되었다고 언급</li> <li>5. 이어도의 자원, 군사, 영토확대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며 정리를 하고 있음</li> </ol>

### (3) 중학교 사회과 부도의 이어도 관련 내용

조사한 중학교 사회과 부도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도’ 또는 ‘제주도 지도’와 관련하여 이어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도의 언급과 함께 이어도 해양 종합과학기지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의 위치를 실제 위치와는 거리가 먼 곳에 별도 표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마라도와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위도·경도로 대신하여 정확한 위치를 학생들이 알기가 어렵다. 각 출판사에서 사회과부도에 소개한 관련 지도 중 마라도와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지도는 절반에 그쳤다. 또한 중국, 일본과 관련하여 이어도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없었다. 다만 N 사회과부도의 지도는 이어도를 우리나라 지도 내의 실제 위치에 표시하였고, 해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실성이 있었다.

출판사	관련 쪽수	지도 제목	기술된 내용	특이사항
H	1	우리나라 행정 및 지역구분도	이어도(종합해양기지)	1.제주도와의 거리 내용 없음 2.위도·경도를 초(")단위까지 표시 3. 점으로 위치 표시
	5A10	대한민국 전도	이어도: 북위 32°07' 22" (종합해양기지)	1.제주도와의 거리 내용 없음 2.위도·경도 표시 3. 점으로 위치 표시
	22A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위도 32°07', 경도 125°10'	1.제주도와의 거리 내용 없음 2.위도·경도를 초(")단위까지 표시 3. 점으로 위치 표시
I	7	우리나라 전도	마라도 149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북위 32°07' 22")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2.위도·경도의 도(°)단위까지만 언급 3. 점으로 위치 표시
J	5-J12	우리나라 전도	마라도 149km 이어도 32°07' 22" 종합 해양 과학기지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2.위도는 초(") 단위까지 표시, 경도는 도(°) 단위까지 언급 3. 점으로 위치 표시
K	21A2	제주특별자치도	125°10' E 이어도(이어도종합해양 과학 기지) 32°07' N	1.제주도와의 거리 내용 없음 2.위도·경도를 초(") 단위까지 표시 3. 점으로 위치 표시
L	7	우리나라 행정구역	마라도 149km 이어도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 기지)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2.위도와 경도를 선으로 도(°)단위까지 표시 3. 점으로 위치 표시
	5H12	우리나라 전도	마라도 149km 이어도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 기지)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2.북위, 동경 표시를 초(")단위까지 표시 3. 점으로 위치 표시
	17H8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149km 이어도 (이어도 종합해양 과학 기지)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2.북위, 동경을 초(")단위까지 표시 3. 위도·경도 표시만 있고 섬 또는 점 위치 표시가 없음

출판사	관련 쪽수	지도 제목	기술된 내용	특이사항
M	10A6	남부지방	이어도(종합 해양 과학 기지) 동경 125°10' 57" 북위 32°07' 22"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없음 2. 북위, 동경 을 초(")단위까지 표시
	22A2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종합 해양 과학 기지) 동경 125°10' 57" 북위 32°07' 22"	1.마라도와의 거리 표시 없음 2. 북위, 동경 을 초(")단위까지 표시
N	5B11	우리나라 전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 동경 125°10' 57" · 북 위 32°07' 22"	1 이어도 위치를 우리나라 지도내에서 표시 2. 해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 표시 3. 이어도와의 구체적 거리 표시 없음

중학교 사회①은 우리나라 영역을 다루는 분야가 없어서 이어도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도가 제시될 경우는 독도는 물론, 이어도도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상재해의 부분에서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의 역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사회②는 우리나라 영역을 다루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영해와 EEZ에 대한 개념과 독도는 물론 이어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이어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상세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사회과부도에서는 종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양중심의 지도를 제시하여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독도와 이어도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제인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 중학생의 인식 및 교육실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1) 이어도와 해양영토에 대한 선행연구

이어도와 해양영토와 관련된 선행연구물과 참고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이어도와 해양영토와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참고한 내용
유혜란(2007)	일본 중등학교 영토교육	일본 영토교육의 현황
심정보(2008)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일본 중·고등학교의 독도 관련 교육과 그 내용
현경병(2009)	국토의 남단 이어도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영토교육 방안
허은실, 남상준(2011)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일본 초등 사회과의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분석 내용
이하나, 조철기(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중학교 교육에서의 이어도 교육 방안 시사점
남호열(2011)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바람직한 영토교육 방안
조성운(2011)	일본의 이어도 실체 인식에 대한 연구	이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이준백(2011)	이어도 주변 식물플랑크톤 군집 동태 특성과 메타게노믹스 분석	이어도 수역의 해양자원의 가치
강병철(2011)	남중국해의 해양 갈등 연구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전략 및 대응 방안
강병철(2011)	이어도 주변 해양수송로의 중요성과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해양수송로의 확보 필요성과 이어도 수역의 중요성
강병철(2011)	동북아 해역 중국의 영토분쟁과 대응방안	동북아 해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합리적 접근 방법
한림화(2011)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민의 설화와 중국 자료와의 비교
양덕순(2011)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	이어도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및 인식도 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참고한 내용
김태영(2012)	한·중 해양관할권 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양법 제도와 한·중의 해양정책 및 이어도의 법적 지위
조성윤(2013)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 실체의 출현 과정
송성대(2013)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미	이어도 실재에 대한 논란
김현수, 양희철(2013)	한반도 주변 수역 대중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중국의 도서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최병학(2013)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해양수송로와 이어도 가치
김희열(2013)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과 현재 상태
김태일(2013)	마라도 방문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이어도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문항
송성대(201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이성우(2013)	영토 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해양영토 분쟁에 대처방안세
이창형(2013)	다오위다오(釣魚島) 관련 중국의 입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합리적 해결 방안
배진수(2013)	센카쿠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독도 관련 우리의 입장 모색
권순철(2015)	이어도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사례 분석	교원의 이어도 관련 직무연수 실태

이어도와 해양영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해양영토교육 방안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해양영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서와 논문으로는 유혜란(2007), 심정보(2008), 현경병(2009), 허은실·남상준(2011), 이하나·조철기(2011), 남호열(2011)) 등 다수가 있다.

둘째, 이어도의 실체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이어도가 국제적으로 드러난 과정과 이어도와의 역사·사회문화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인식론적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는 한림화(2011), 조성

윤(2011), 송성대(2013)의 논문이 있다,

셋째, 이어도의 가치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는 이준백(2011), 강병철(2011), 최병학(2013) 등의 논문이 있다.

넷째, 이어도의 국제법상, 국내법상의 지위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이어도를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의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는 김태영(2012), 최병학(2013) 등의 논문이 있다,

다섯째, 이어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3국의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논문과 저서이다. 이어도에 대한 연구의 상당수가 이것에 해당되는데 중국과 일본의 긴장관계, 우리와 일본 간의 독도 관련 대립, 우리와 중국 간의 이어도 관련 대립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구 상당수가 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는 강병철(2011), 김현수, 양희철(2013), 김희열(2013), 송성대(2013), 이성우(2013), 이창형(2013), 배진수(2013) 등의 논문이 있다.

여섯째, 이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이어도 홍보 방법,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이 범주의 연구로는 양덕순(2011), 김태일(2013), 권순철(2015) 등이 있다.

## 2) 본 연구의 설문 문항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권순철의 「이어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사례분석」은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교원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어도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양덕순의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는 전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김태일의 「이어도 기념공원조성을 위한 디자인 방향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마라도의 인식조사 및 지역자산 활용을 중심으로」는 마라도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

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이어도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범위와 대상이 달랐다. 다만 양덕순이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문항의 내용<sup>5)</sup>을 일부 참고하여 본 연구의 설문문항으로 활용하였는데, <표 2>는 양덕순의 설문문항 중 본 연구에 반영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본 논문의 설문문항은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3>은 설문의 6개의 영역과 이에 따른 항목의 개수 및 양덕순의 설문문항을 반영하였거나 참고한 항목을 분석한 것이다. 그 외 이어도 설문문항은 이어도 관련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서 다른 분야의 교육활동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본 설문의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2> 양덕순(2011)의 설문문항

양덕순 설문 문항		본 연구에 반영되었거나 참고한 문항
영역	문항 내용	
이어도의 일반적 사항	이어도 인지 여부	○
	이어도 인지 경로	○
	이어도 전설	○
	이어도 민요	○
	해양과학기지	○
	이어도 이미지	○
	이어도 검색 경험 여부	○
	이어도 검색 내용	×
	이어도 검색 만족도	×
	이어도의 중국 명칭	×
	중국의 '이어도 공정' 인지 여부	○
	(사) 이어도연구회 인지 여부	×
	이어도 관심 정도	○
이어도 홍보 사항	'이어도의 날' 조례안 인지	×
	'이어도의 날' 기념행사	×
	제주도의 이어도 홍보 만족도	×

5) 양덕순,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II』,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조사원, 2011.



양덕순 설문 문항		본 연구에 반영되었거나 참고한 문항
영역	문항 내용	
이어도 홍보 전략	이어도 관련 단체 참가의향	×
	국토 최남단 변경	×
	이어도 홍보 담당 기관	×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인지 및 참가의향 ③ 문항	×
	이어도 번지수 부여 의견 ③ 문항	×
	이어도 조례 ③	×
	정부의 이어도 홍보 사업에 대한 의견 ⑩ 문항	○

<표 3> 본 연구 설문 영역과 문항 개수 및 양덕순 설문 반영 여부

설문 영역	문항 개수	양덕순 설문 문항 반영 여부
이어도의 일반적 사항	7	'이어도의 일반적 사항'의 일부 문항 참고하여 7문항 작성
이어도 교육 실태	8	참고한 내용 없음
이어도 교육에 포함될 내용	20	'정부의 이어도 홍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일부 참고하여 문항 작성
이어도 교육 방법	14	참고한 내용 없음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 인식도	8	중국의 '이어도 공정' 문항 참고하여 1문항 작성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식	7	참고한 내용 없음

#### 4. 시사점

선행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어도의 실체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민의 전승구비문학에 상당수가 남아 있으며, 설화는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어도를 발견하고 확보하려는 시도가 이미 1950년부터 진행되어 온 반면에, 중국의 이어도를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이어도의 실체를 인정한 것도 1963년이 최초이다. 따라서 이어도가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우리와의 밀접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영해기선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중간선을 경계로 하였을 때 우리의 EEZ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어도는 해양생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안전한 해양수송로, 태풍 피해 예방 등 그 가치가 무한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13년 중국이 동중국해 해상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으로 촉발된 긴장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는 의외로 중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sup>6)</sup> 이 확대 조치에는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양국의 EEZ을 획정할 때의 시사점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해양영토교육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이것은 그동안의 육지를 중심으로 영토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에서도 해양영토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어도교육을 위해 사전연구로서 인식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

6) 연합뉴스, 中, 韓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유감', 2013.12.09.

탕으로 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이어도교육 방안이 제시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석 방법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이어도 및 이어도교육에 대한 제주도내 중학생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89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52명(50.7%), 여자가 440명(49.3%)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313명(35.1%), 2학년이 288명(32.3%), 3학년이 291명(32.6%)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제주시 동 지역이 290명(32.5%), 제주시 읍면 지역이 156명(17.5%), 서귀포시 동 지역이 295명(33.1%), 서귀포시 읍면 지역이 151명(16.9%)이었으며,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은 제주시 동 지역이 278명(31.2%), 제주시 읍면 지역이 153명(17.2%), 서귀포시 동 지역이 277명(31.1%), 서귀포시 읍면 지역이 137명(15.4%), 도외 지역(육지, 해외)이 47명(5.3%)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20일까지 20 일간이며, 제주시 동지역은 3개 학교, 제주시 읍면지역 학교는 3개 학교, 서귀포시 동지역 학교는 3개 학교, 서귀포시 읍면지역 학교는 4개 학교 등 총 13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52	50.7
	여자	440	49.3
학년	1학년	313	35.1
	2학년	288	32.3
	3학년	291	32.6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	290	32.5
	제주시 읍면 지역	156	17.5
	서귀포시 동 지역	295	33.1
	서귀포시 읍면 지역	151	16.9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	278	31.2
	제주시 읍면 지역	153	17.2
	서귀포시 동 지역	277	31.1
	서귀포시 읍면 지역	137	15.4
	도의 지역(육지, 해외)	47	5.3
전체		892	100.0

## 2)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이어도에 대한 인식정도,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어도 인지여부와 교육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를 구성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2.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변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신뢰도 검증

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20	.981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14	.952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8	.802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7	.947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이어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의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어도에 대한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전체의 이어도 인지여부는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이 520명(58.3%)으로 들어본 적 없음 372명(41.7%)보다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의 성별은 남자가 58.6%, 여자가 58%로 비슷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학년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5.335$ ,  $p<.001$ ).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이 1학년이 55.6%, 2학년이 52.1%, 3학년이 67.4%로 나타나 3학년이 1,2학년보다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4.499$ ,  $p<.01$ ).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이 제주시 동 지역이 52.8%, 제주시 읍면 지역 52.6%, 서귀포시 동 지역 66.8%, 서귀포시 읍면 지역 58.3%로 나타나 서귀포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 지역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7.101$ ,  $p<.01$ ). 이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이 제주시 동 지역 53.6%, 제주시 읍면 지역 50.3%, 서귀포시 동 지역 67.9%, 서귀포시 읍면 지역 56.9%, 도외 지역(육지, 해외) 59.6%로 나타나 서귀포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 지역, 도외 지역(육지, 해외)의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인지여부의 차이

항목	구분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 없음	$\chi^2 (p)$
성별	남자	265(58.6)	187(41.4)	.042 (.838)
	여자	255(58.0)	185(42.0)	
학년	1학년	174(55.6)	139(44.4)	15.335*** (.000)
	2학년	150(52.1)	138(47.9)	
	3학년	196(67.4)	95(32.6)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	153(52.8)	137(47.2)	14.499** (.002)
	제주시 읍면 지역	82(52.6)	74(47.4)	
	서귀포시 동 지역	197(66.8)	98(33.2)	
	서귀포시 읍면 지역	88(58.3)	63(41.7)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	149(53.6)	129(46.4)	17.101** (.002)
	제주시 읍면 지역	77(50.3)	76(49.7)	
	서귀포시 동 지역	188(67.9)	89(32.1)	
	서귀포시 읍면 지역	78(56.9)	59(43.1)	
	도외 지역(육지, 해외)	28(59.6)	19(40.4)	
전체		520(58.3)	372(41.7)	

\*\*  $p < .01$ , \*\*\*  $p < .001$

## 2) 이어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정도

제주도내 중학생들의 이어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이어도 들어본 경로는 TV 및 신문이 272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또는 지역사회 어른들 158명(23.2%), 인터넷 103명(15.1%), 학교 선생님 73명(10.7%), 기타 55명(8.1%), 잡지 11명(1.6%), 강연 5명(0.7%), 동아리 활동 3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관련 전설 들어본 경험은 들어본 적 없음이 822명(92.2%)으로 들어본 적 있음 70명(7.8%)보다 많았고, 이어도 관련 민요 들어본 경험 또한 들어본 적 없음이 768명(86.2%)으로 들어본 적 있음 123명(13.8%)보다 많았으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지여부는 모름이 712명(79.8%)으로 알고 있음 180명(20.2%)보다 많았다. 이어도 관련 이미지는 기타가 255명(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설 속의 섬 218명(19.0%), 수중 암초가 207명(18.0%), 해양과학기지 201명(17.5%), 제주인의 마음의 고향 139명(12.1%), 주변 국가와의 분쟁 지역 89명(7.7%), 이상향 22명(1.9%), 상업적 상호명 19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실제 존재여부는 실제로 존재함이 678명(76.0%)으로 존재하지 않음 214명(24.0%)보다 많았다.

<표 7> 이어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정도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이어도 들어본 경로	TV 및 신문	272	40.0
	학교 선생님	73	10.7
	잡지	11	1.6
	인터넷	103	15.1
	부모님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들	158	23.2
	강연	5	0.7
	동아리 활동	3	0.4
	기타	55	8.1
이어도 관련 전설 들어본 경험	들어본 적 있음	70	7.8
	들어본 적 없음	822	92.2
이어도 관련 민요 들어본 경험	들어본 적 있음	123	13.8
	들어본 적 없음	768	86.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지여부	알고 있음	180	20.2
	모름	712	79.8
이어도 관련 이미지	수중 암초	207	18.0
	해양과학기지	201	17.5
	전설 속의 섬	218	19.0
	제주인의 마음의 고향	139	12.1
	이상향	22	1.9
	주변 국가와의 분쟁 지역	89	7.7
	상업적 상호명	19	1.7
	기타	255	22.2
이어도 실제 존재여부	실제로 존재함	678	76.0
	존재하지 않음	214	24.0

## 2. 이어도 교육 실태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의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전체의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는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음이 833명(93.5%)으로 교육 경험 있음 58명(6.5%)보다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 있음의 성별은 남자가 7.1%, 여자가 5.9%로 비슷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 학년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9.313$ ,  $p<.001$ ).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 있음이 1학년 5.8%, 2학년 2.4%, 3학년 11.3%로 나타나 3학년이 1,2학년보다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9.937$ ,  $p<.05$ ).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 있음이 제주시 동 지역 3.1%, 제주시 읍면 지역 6.4%, 서귀포시 동 지역 9.5%, 서귀포시 읍면 지역 7.3%로 나타나 서귀포시 동 지역의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8.413$ ,  $p<.01$ ).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 있음이 제주시 동 지역 2.9%, 제주시 읍면 지역 5.9%, 서귀포시 동 지역 10.1%, 서귀포시 읍면 지역 4.4%, 도외 지역(육지, 해외) 14.9%로 나타나 도외 지역(육지, 해외)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이에도에 대한 교육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의 차이

항목	구분	있음	없음	$\chi^2 (p)$
성별	남자	32(7.1)	419(92.9)	.515 (.473)
	여자	26(5.9)	414(94.1)	
학년	1학년	18(5.8)	294(94.2)	19.313*** (.000)
	2학년	7(2.4)	281(97.6)	
	3학년	33(11.3)	258(88.7)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	9(3.1)	280(96.9)	9.937* (.019)
	제주시 읍면 지역	10(6.4)	146(93.6)	
	서귀포시 동 지역	28(9.5)	267(90.5)	
	서귀포시 읍면 지역	11(7.3)	140(92.7)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	8(2.9)	269(97.1)	18.413** (.001)
	제주시 읍면 지역	9(5.9)	144(94.1)	
	서귀포시 동 지역	28(10.1)	249(89.9)	
	서귀포시 읍면 지역	6(4.4)	131(95.6)	
	도외 지역(육지, 해외)	7(14.9)	40(85.1)	
전체		58(6.5)	833(93.5)	

\*  $p < .05$ , \*\*  $p < .01$ , \*\*\*  $p < .001$

## 2) 이어도 교육 실태

제주도내 중학생들의 이어도에 대한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이어도에 대해 교육 받은 선생님은 사회 선생님이 27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19명(22.1%), 기타 10명(11.6%), 국어 선생님 8명(9.3%), 역사 선생님 5명(5.8%), 과학 선생님 5명(5.8%), 담임 선생님 5명(5.8%), 외부강사 선생님 4명(4.7%), 음악 선생님 3명(3.5%), 창의적 체험활동 선생님 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관련 학교 친구들 인식정도는 ‘매우 잘 알고 있다.’ 7명(0.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1명(6.8%), ‘잘 모르겠다.’ 372명(41.7%), ‘별로 알고 있지 않다.’ 324명(36.3%), ‘전혀 알고 있지 않다.’ 128명(14.3%)으로 이어도 관련 학교 친구들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관련 교육실시 의향은 ‘매우 찬성한다.’ 131명(14.7%), ‘어느 정도 찬성한다.’ 406명(45.6%), ‘잘 모르겠다.’ 219명(24.6%),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99명(11.1%),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6명(4.0%)으로 이어도 관련 교육 실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도 관련 학교교육 담당교과는 사회과가 349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사과 190명(25.4%), 국어과 77명(10.3%), 과학과 77명(10.3%), 기타 31명(4.1%), 음악과 25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어도 관련 학교교육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이어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가 82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 배울 교과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28명(17.7%), ‘이어도가 별도로 교육할만한 정도의 가치가 없어서이다.’ 27명(17.1%), 기타 10명(6.3%), ‘이웃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명(3.8%),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다.’ 5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도 관련 자료나 정보 학교도서관 비치여부는 ‘매우 많다.’ 4명(0.4%), ‘많은 편이다.’ 12명(1.3%), ‘잘 모르겠다.’ 575명(64.5%), ‘거의 없다.’ 251명(28.1%), ‘전혀 없다.’ 50명(5.6%)으로 ‘잘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다.

<표 9> 이어도 교육 실태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이어도에 대해 교육 받은 선생님	국어 선생님	8	9.3
	사회 선생님	27	31.4
	역사 선생님	5	5.8
	과학 선생님	5	5.8
	음악 선생님	3	3.5
	창의적 체험활동 선생님	-	-
	담임 선생님	5	5.8
	외부강사 선생님	4	4.7
	초등학교 선생님	19	22.1
	기타	10	11.6
	이어도 관련 학교 친구들 인식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1	6.8
잘 모르겠다.		372	41.7
별로 알고 있지 않다.		324	36.3
전혀 알고 있지 않다.		128	14.3
이어도 관련 교육실시 의향	매우 찬성한다.	131	14.7
	어느 정도 찬성한다.	406	45.6
	잘 모르겠다.	219	24.6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99	11.1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6	4.0
이어도 관련 학교교육 담당교과	국어과	77	10.3
	사회과	349	46.6
	역사과	190	25.4
	과학과	77	10.3
	음악과	25	3.3
	기타	31	4.1
이어도 관련 학교교육 찬성하지 않는 이유	학교에서 배울 교과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28	17.7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다.	5	3.2
	이어도가 별도로 교육할만한 정도의 가치가 없어서이다.	27	17.1
	이웃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	3.8
	이어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82	51.9
	기타	10	6.3
이어도 관련 자료나 정보 학교도서관 비치여부	매우 많다.	4	0.4
	많은 편이다.	12	1.3
	잘 모르겠다.	575	64.5
	거의 없다.	251	28.1
	전혀 없다.	50	5.6

### 3. 이어도 교육 주요 변수의 기초분석

#### 1) 이어도 교육 내용의 필요도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어도 교육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필요도의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20문항 전체 평균은 3.62로 나타났고, 19. 이어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비교의 평균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할 3.71, 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 3.71, 20. 국가 간 해양 분쟁의 해결 사례 3.71, 15. 이어도와 독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 3.68, 16.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정책 3.68, 9. 이어도 바다의 해저 자원 3.67, 2.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3.65, 8. 이어도 바다의 수산 자원 3.64, 14.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국제법상의 지위 3.63, 11. EEZ(EEZ)과 이어도와의 관계 3.62, 3. 이어도의 국제법상의 지위 3.59, 7. 이어도 바다의 특징과 기후 3.58, 10. 안전 통행로(안전 수역)서의 이어도 3.58, 1. 이어도의 역사 3.56, 17.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 3.56, 18.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 3.55, 5. 옛 제주 사람들 전설에 나타난 이어도 3.54, 4. 이어도의 지명 유래 3.48, 6. 제주 민요에 나타난 이어도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이어도 교육에 포함될 내용의 필요도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1. 이어도의 역사	21(2.4)	33(3.7)	402(45.1)	299(33.5)	137(15.4)	3.56
2.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22(2.5)	25(2.8)	357(40.0)	328(36.8)	160(17.9)	3.65
3. 이어도의 국제법상의 지위	22(2.5)	31(3.5)	399(44.7)	283(31.7)	157(17.6)	3.59
4. 이어도의 지명 유래	25(2.8)	46(5.2)	429(48.1)	260(29.1)	132(14.8)	3.48
5. 옛 제주 사람들 전설에 나타난 이어도	22(2.5)	49(5.5)	386(43.3)	291(32.6)	144(16.1)	3.54
6. 제주 민요에 나타난 이어도	24(2.7)	57(6.4)	419(47.0)	275(30.8)	117(13.1)	3.45
7. 이어도 바다의 특징과 기후	26(2.9)	31(3.5)	384(43.0)	305(34.2)	146(16.4)	3.58
8. 이어도 바다의 수산 자원	23(2.6)	31(3.5)	363(40.7)	301(33.7)	174(19.5)	3.64
9. 이어도 바다의 해저 자원	23(2.6)	29(3.3)	360(40.4)	290(32.5)	190(21.3)	3.67
10. 안전 통행로(안전 수역)서의 이어도	21(2.4)	34(3.8)	408(45.7)	267(29.9)	162(18.2)	3.58
11. EEZ(EEZ)과 이어도와의 관계	20(2.2)	38(4.3)	391(43.8)	259(29.0)	184(20.6)	3.62
1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할	20(2.2)	18(2.0)	360(40.4)	300(33.6)	194(21.7)	3.71
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	21(2.4)	19(2.1)	355(39.8)	304(34.1)	193(21.6)	3.71
14.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국제법상의 지위	18(2.0)	30(3.4)	391(43.8)	281(31.5)	172(19.3)	3.63
15. 이어도와 독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	23(2.6)	35(3.9)	350(39.2)	281(31.5)	203(22.8)	3.68
16.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정책	19(2.1)	25(2.8)	368(41.3)	286(32.1)	194(21.7)	3.68
17.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	29(3.3)	43(4.8)	390(43.7)	256(28.7)	174(19.5)	3.56
18.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	28(3.1)	46(5.2)	401(45)	243(27.2)	174(19.5)	3.55
19. 이어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비교	20(2.2)	27(3.0)	361(40.5)	243(27.2)	241(27.0)	3.74
20. 국가 간 해양 분쟁의 해결 사례	22(2.5)	27(3.0)	365(40.9)	255(28.6)	223(25.0)	3.71
전체						3.62

## 2) 이어도 교육 방법의 필요도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14문항 전체 평균은 3.27로 나타났고, 1. 관련 교과의 수업 시간 활용의 평균이 3.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 이어도 전문 강사 초빙 3.47, 7. 학교 게시판 또는 학급 게시판에 이어도 자료 게시 3.43, 2.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3.40, 9. ‘골든벨 올려라’ 방식의 이어도 관련 퀴즈 대회 운영 3.37, 6. 이어도의 날 또는 이어도 주간 운영 3.32, 12. ‘과학의 날’에 이어도 해양종합기지 관련 글짓기, 그림 그리기 3.29, 5. 이어도 계기교육 3.27, 11. 이어도 관련 문학 대회 운영 3.24, 8. 교장 훈화 또는 담임교사의 훈화를 통한 이어도 교육 3.17, 14. ‘이어도’ 단어가 들어간 제주도내의 상호명 조사 3.11, 4. 이어도 동아리 운영 3.06, 10. 이어도 관련 제주 민요 부르기 대회 운영 3.06, 13. 관련 교과에서 이어도 관련 수행평가 실시 2.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이어도 교육 방법의 필요도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1. 관련 교과의 수업 시간 활용	25(2.8)	54(6.1)	304(34.1)	350(39.2)	159(17.8)	3.63
2.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45(5.0)	97(10.9)	340(38.1)	278(31.2)	132(14.8)	3.40
3. 이어도 전문 강사 초빙	31(3.5)	82(9.2)	355(39.8)	284(31.8)	140(15.7)	3.47
4. 이어도 동아리 운영	67(7.5)	161(18)	399(44.7)	183(20.5)	82(9.2)	3.06
5. 이어도 계기교육	44(4.9)	101(11.3)	406(45.5)	250(28.0)	91(10.2)	3.27
6. 이어도의 날 또는 이어도 주간 운영	45(5.0)	93(10.4)	393(44.1)	254(28.5)	107(12)	3.32
7. 학교 게시판 또는 학급 게시판에 이어도 자료 게시	36(4.0)	70(7.8)	377(42.3)	291(32.6)	118(13.2)	3.43
8. 교장 훈화 또는 담임교사의 훈화를 통한 이어도 교육	72(8.1)	110(12.3)	397(44.5)	223(25.0)	90(10.1)	3.17
9. ‘골든벨 올려라’ 방식의 이어도 관련 퀴즈 대회 운영	44(4.9)	97(10.9)	368(41.3)	248(27.8)	135(15.1)	3.37
10. 이어도 관련 제주 민요 부르기 대회 운영	90(10.1)	130(14.6)	391(43.8)	195(21.9)	86(9.6)	3.06
11. 이어도 관련 문학 대회 운영	56(6.3)	106(11.9)	398(44.6)	236(26.5)	96(10.8)	3.24
12. ‘과학의 날’에 이어도 해양종합기지 관련 글짓기, 그림 그리기	59(6.6)	103(11.5)	370(41.5)	242(27.1)	118(13.2)	3.29
13. 관련 교과에서 이어도 관련 수행평가 실시	150(16.8)	120(13.5)	373(41.8)	170(19.1)	79(8.9)	2.90
14. ‘이어도’ 단어가 들어간 제주도내의 상호명 조사	81(9.1)	117(13.1)	409(45.9)	197(22.1)	88(9.9)	3.11
전체						3.27

### 3)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8문항 전체 평균은 2.85로 나타났고, 2.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는 일본의 해양교육의 평균이 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3.04, 8. 지금의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에 대한 생각 2.89, 7. 중국이 이어도 수역을 중국의 EEZ(EEZ)에 포함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2.77, 6.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 2.71, 4. 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해양 영토 확장 2.70, 5. 이어도 수역을 중국 EEZ(EEZ)에 포함 2.59, 1. 일본의 EEZ(EEZ) 정책 2.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문항	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1. 일본의 EEZ(EEZ) 정책	244(27.4)	214(24)	238(26.7)	114(12.8)	82(9.2)	2.52
2.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는 일본의 해양교육	88(9.9)	85(9.5)	217(24.3)	246(27.6)	256(28.7)	3.56
3.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138(15.5)	168(18.8)	260(29.1)	170(19.1)	156(17.5)	3.04
4. 중국은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해양 영토 확장	194(21.7)	204(22.9)	270(30.3)	120(13.5)	104(11.7)	2.70
5. 이어도 수역을 중국 EEZ(EEZ)에 포함	223(25)	217(24.3)	247(27.7)	113(12.7)	92(10.3)	2.59
6.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	150(16.8)	184(20.7)	384(43.1)	118(13.2)	55(6.2)	2.71
7. 중국이 이어도 수역을 중국의 EEZ(EEZ)에 포함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118(13.2)	138(15.5)	510(57.2)	84(9.4)	42(4.7)	2.77
8. 지금의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에 대한 생각	109(12.2)	103(11.5)	510(57.2)	119(13.3)	51(5.7)	2.89
전체						2.85

#### 4)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7문항 전체 평균은 3.18로 나타났고, 1. 이어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의향의 평균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 이어도 전설이나 문학 작품을 읽어볼 의향 3.31, 3.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이어도에 관한 활동을 할 의향 3.27, 4. 이어도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볼 의향 3.12, 2. 이어도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서적을 찾아볼 의향 3.10, 7. 이어도 이름이 붙여진 건물이나 상호, 지명을 조사해볼 의향 3.07, 5. 이어도와 관련된 민요를 배우고 불러볼 의향 2.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문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모르겠다	참여 하겠다	적극 참여하겠 다	평균
1. 이어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의향	39(4.4)	95(10.7)	352(39.5)	291(32.6)	115(12.9)	3.39
2. 이어도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서적을 찾아볼 의향	74(8.3)	120(13.5)	412(46.2)	211(23.7)	75(8.4)	3.10
3.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이어도에 관한 활동을 할 의향	48(5.4)	105(11.8)	397(44.5)	246(27.6)	96(10.8)	3.27
4. 이어도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볼 의향	54(6.1)	130(14.6)	438(49.1)	192(21.5)	78(8.7)	3.12
5. 이어도와 관련된 민요를 배우고 불러볼 의향	98(11.0)	144(16.1)	408(45.7)	171(19.2)	71(8.0)	2.97
6. 이어도 전설이나 문학 작품을 읽어볼 의향	57(6.4)	104(11.7)	354(39.7)	257(28.8)	120(13.5)	3.31
7. 이어도 이름이 붙여진 건물이나 상호, 지명을 조사해볼 의향	81(9.1)	135(15.1)	398(44.6)	195(21.9)	83(9.3)	3.07
전체						3.18

#### 4. 이어도 교육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비교분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이어도 인지여부,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t=4.790$ ,  $p<.001$ )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어도 인지여부( $t=6.985$ ,  $p<.001$ )는 들어본 적 있음이 없음보다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 $t=2.641$ ,  $p<.01$ )는 교육경험 있음이 없음보다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 학교가 위치한 지역,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에 따른 이어도 교육내용 필요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표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52	3.74±0.81	4.790***	.000
	여자	440	3.49±0.74		
학년	1학년	313	3.61±0.78	2.683	.069
	2학년	288	3.54±0.87		
	3학년	291	3.69±0.71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	290	3.60±0.76	1.546	.201
	제주시 읍면 지역	156	3.55±0.86		
	서귀포시 동 지역	295	3.69±0.74		
	서귀포시 읍면 지역	151	3.56±0.84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	278	3.58±0.75	.679	.607
	제주시 읍면 지역	153	3.56±0.86		
	서귀포시 동 지역	277	3.66±0.75		
	서귀포시 읍면 지역	137	3.61±0.83		
	도외 지역(육지, 해외)	47	3.71±0.86		
이해도 인지여부	들어본 적 있음	520	3.77±0.78	6.985***	.000
	들어본 적 없음	372	3.40±0.76		
이해도 교육 경험여부	있음	58	3.88±0.86	2.641**	.008
	없음	833	3.60±0.78		

\*\* p<.01, \*\*\* p<.00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학년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이어도 인지여부,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F=4.732$ ,  $p<.01$ )은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보다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 $F=4.380$ ,  $p<.01$ )은 서귀포시 동 지역이 서귀포시 읍면 지역보다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F=2.689$ ,  $p<.05$ )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도 인지여부( $t=5.261$ ,  $p<.001$ )는 들어본 적 있음이 없음보다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 $t=2.615$ ,  $p<.01$ )는 교육경험 있음이 없음보다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어도 교육방법 필요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p>.05$ ).

<표 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52	3.34±0.83	2.735	.006
	여자	440	3.19±0.76		
학년	1학년(a)	313	3.31±0.81	4.732**	.009 (b<a,c)
	2학년(b)	288	3.15±0.81		
	3학년(c)	291	3.33±0.77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a)	290	3.21±0.82	4.380**	.005 (d<c)
	제주시 읍면 지역(b)	156	3.20±0.85		
	서귀포시 동 지역(c)	295	3.40±0.73		
	서귀포시 읍면 지역(d)	151	3.17±0.82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a)	278	3.23±0.80	2.689*	.030 (a=b=c=d=e)
	제주시 읍면 지역(b)	153	3.15±0.86		
	서귀포시 동 지역(c)	277	3.37±0.73		
	서귀포시 읍면 지역(d)	137	3.21±0.80		
	도외 지역(육지, 해외)(e)	47	3.42±0.91		
이해도 인지여부	들어본 적 있음	520	3.38±0.81	5.261***	.000
	들어본 적 없음	372	3.10±0.76		
이해도 교육 경험여부	있음	58	3.53±0.87	2.615**	.009
	없음	833	3.25±0.79		

\*  $p<.05$ , \*\*  $p<.01$ , \*\*\*  $p<.001$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년,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이어도 인지여부,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t=4.001$ ,  $p<.001$ )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년( $F=11.466$ ,  $p<.001$ )은 3학년이 1,2학년보다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F=4.100$ ,  $p<.01$ )은 도외 지역(육지, 해외)이 제주시 동 지역과 제주시 읍면 지역보다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도 인지여부( $t=7.327$ ,  $p<.001$ )는 들어본 적 있음이 없음보다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 $t=4.907$ ,  $p<.001$ )는 교육경험 있음이 없음보다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표 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52	2.95±0.78	4.001***	.000
	여자	440	2.75±0.74		
학년	1학년(a)	313	2.82±0.75	11.466***	.000 (a,b<c)
	2학년(b)	288	2.72±0.76		
	3학년(c)	291	3.01±0.76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	290	2.83±0.73	2.311	.075
	제주시 읍면 지역	156	2.73±0.79		
	서귀포시 동 지역	295	2.89±0.71		
	서귀포시 읍면 지역	151	2.93±0.89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a)	278	2.83±0.73	4.100**	.003 (a,b<e)
	제주시 읍면 지역(b)	153	2.69±0.77		
	서귀포시 동 지역(c)	277	2.87±0.72		
	서귀포시 읍면 지역(d)	137	2.93±0.86		
	도외 지역(육지, 해외)(e)	47	3.15±0.86		
이어도 인지여부	들어본 적 있음	520	3.00±0.78	7.327***	.000
	들어본 적 없음	372	2.63±0.69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	있음	58	3.41±0.91	4.907***	.000
	없음	833	2.81±0.74		

\*\* p<.01, \*\*\* p<.001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학년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이어도 인지여부에 따라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F=3.336, p<.05$ )은 3학년이 1,2학년보다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 $F=3.770, p<.05$ )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F=2.495, p<.05$ )은 도외 지역(육지, 해외)이 제주도 읍면 지역보다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도 인지여부( $t=5.193, p<.001$ )는 들어본 적 있음이 없음보다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표 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차이

항목	구분	N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452	3.19±0.92	.514	890
	여자	440	3.16±0.85		
학년	1학년(a)	313	3.18±0.88	3.336*	.036 (a,b<c)
	2학년(b)	288	3.08±0.93		
	3학년(c)	291	3.27±0.84		
학교가 위치한 지역	제주시 동 지역(a)	290	3.14±0.91	3.770*	.010 (a=b=c=d)
	제주시 읍면 지역(b)	156	3.08±0.89		
	서귀포시 동 지역(c)	295	3.31±0.83		
	서귀포시 읍면 지역(d)	151	3.08±0.92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	제주시 동 지역(a)	278	3.13±0.91	2.495*	.042 (b<e)
	제주시 읍면 지역(b)	153	3.06±0.88		
	서귀포시 동 지역(c)	277	3.26±0.84		
	서귀포시 읍면 지역(d)	137	3.14±0.91		
	도외 지역(육지, 해외)(e)	47	3.43±0.89		
이어도 인지여부	들어본 적 있음	520	3.31±0.87	5.193***	.000
	들어본 적 없음	372	3.00±0.87		
이어도 교육 경험여부	있음	58	3.51±0.89	2.983	889
	없음	833	3.15±0.88		

\*  $p<.05$ , \*\*\*  $p<.001$

## 5. 이어도 교육 변수 간 상관분석

이어도 교육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606$ ),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338$ ),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533$ ).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와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326$ ),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와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677$ ).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와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08$ ).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평균은 3.62로 나타났고,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평균은 3.27,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의 평균은 2.85,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의 평균은 3.18로 나타났다.

<표 18>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1.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1			
2.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606***	1		
3.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338***	.326***	1	
4.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533***	.677***	.408***	1
평균	3.62	3.27	2.85	3.18
표준편차	0.79	0.80	0.77	0.89

\*\*\*  $p<.001$

## 6.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대한 회귀 분석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F=310.175(p<.001)$ 로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R^2$ 은 0.512로 51.2%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변수들의 VIF는 10을 넘지 않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는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가 높을수록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beta=.524, p<.001$ ),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beta=.185, p<.001$ ),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beta=.153, p<.001$ ) 순으로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이어도 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eta$	$t$	$p$	VIF
(상수)		.449	.653	
이어도 교육내용의 필요도	.153	5.088***	.000	1.639
이어도 교육방법의 필요도	.524	17.539***	.000	1.624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 인식도	.185	7.321***	.000	1.160

$F=310.175(p<.001)$ ,  $R\text{-Square}=.512$ ,  $\text{Adjusted } R\text{-Square}=.510$

\*\*\*  $p<.001$

## 7. 분석 결과

본 논문은 중학교 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어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이어도 교육의 필요도 및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 및 이웃국가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인식도,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 정도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어도에 대한 인지 여부를 성별, 학년별,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로 남자가 58.6%, 여자가 58.0%로 비슷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 따른 인지여부는 1학년이 55.6%, 2학년이 52.1%, 3학년이 67.4%로 나타나 3학년이 1,2학년보다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학년 사회교과과정에 영토교육 분야 속에 이어도를 조금이라도 소개한 내용이 있어 이런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인지도를 보면, 서귀포시 동 지역이 66.8%, 서귀포시 읍면 지역이 58.3%, 제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각각 52.8%, 52.6%로 나타나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어도를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논의해볼 만 사항이다.

둘째, 이어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학생이 전체의 4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영토에 대한 주변국가와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학생들 절반 가까이가 이어도에 인식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의 영토교육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독도에 관하여는 독도 주간 행사, 독도 지킴이, 사회과 및 역사과에서 별도 단원으로 이를 교육하는데, 이어도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언급이 전무하고 몇 개의 사회교과서에만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힘을 모우기 위해서도 이어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 조사연구는 이어도에 비교적 근접한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면 이어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실태는 국토와 애국심 고취교육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사회과교육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학생이 전체의 93.5%로 나타나서 실제로는 이어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 성취기준에 이어도 관련 언급이 없고, 사회교과서에서 형식적으로 이어도를 소개하며, 이어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어도는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학생에 대한 이어도교육은 먼저 교사의 전문지식의 습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어도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이수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과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겠다.

넷째, 이어도를 알게 된 경로는 TV나 신문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23.2%, 인터넷 15.1%인 반면에,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어본 것은 10.7%에 불과하여 학교에서의 이어도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에 대한 이어도연수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이어도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가 14.7%, ‘어느 정도 찬성한다.’가 45.6%이며, ‘잘 모르겠다.’는 24.6%, 나머지 15.1%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체의 60.3%가 이어도교육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교과에서 이어도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사회과 46.6%로 가장 많았으며, 역사과 25.4%, 국어과 10.3%, 과학과 10.3%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어도교육의 필요성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사회과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머지 교과는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섯째, 이어도교육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도 역사, 지리적 위치, 국제법상의 지위 등 총 20문항으로 내용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필요도가 높음)에서 평균 3.62를 보여 적절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교육을 하면 무방할 것 같다. 20문항의 내용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이어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비교’가 3.74,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역할’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가치’ 및 ‘국가 간 해양 분쟁의 해결 사례’가 각각 3.71로 그 뒤를 이어 필요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곱째, 이어도 교육의 방법을 총 ‘관련 교과의 수업시간 활용’,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전문 강사 초빙’ 등 14문항으로 나누어 필요한 교육방법을 조사



한 결과,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필요도가 높음)에서 평균 3.27로 나타나 부담될만한 몇 개를 제외하면 무난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3.63로 가장 바람직하며, ‘이어도 전문 강사를 초빙’이 3.47, ‘학교 게시판 및 학급 게시판’ 활용이 3.43, ‘창의적체험활동’ 활용이 3.40으로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에 ‘관련 교과에서 이어도 관련 수행평가 실시’는 2.90, ‘이어도 동아리 운영’과 ‘이어도 관련 민요 부르기 대회’는 각 3.06으로 비교적 호응도가 낮았다. 이어도 관련 ‘수행평가’ 방법을 제외하고는 평균이상으로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가 교육부에 의뢰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여덟째,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설문문항이 8문항인데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음)에 전체 평균이 2.85로 나타났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해양교육’에 대해서 평균 3.56의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였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도 3.04로 평균 이상으로 나왔지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정책’은 2.52, ‘이어도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하는 중국 정책’은 2.59로 상대적으로 인식도가 떨어져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홉째,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을 알아보는 7문항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의향도가 높음)에 3.18로 나타났다. ‘이어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참여’ 의향은 3.39로 가장 높아 이에 참여할 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어도 전설이나 문학작품을 읽어볼 의향’은 3.31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교에서 이어도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3.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중학생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실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3학년이 1,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지역 학생들이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비해서 이어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비교적 낮고 학교 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을 받은 정도가 매우 낮았지만, 대체로 이어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이어도를 들어본 경로는 TV나 신문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선생님께서 부터 알게 되었다는 학생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넷째,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이어도 교육은 관련교과 수업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적당한 교과가 사회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지만, 한중간의 EEZ 경계획정과 일본의 EEZ 정책 및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정책에 대하여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서 대체로 주변국가의 해양영토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이어도 교육이 실시된다면 이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추후에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한 대상은 제주도내 중학생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제주도의 이어도에 대한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여건이 관련되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전국 단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이어도와 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인식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학교에서 이어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어도 관련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학교현장에서 이어도 교육의 성공가능성을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어도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양에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접근하여야 하겠다.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도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과에서 이어도관련 내용, 과학과에서 종합해양과학기지, 국어과에서 전승문학, 음악과에서 민요 등 이어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어도를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로부터 이어도를 들어본 학생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교사들 자신이 이어도에 관심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냥 지나쳐버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이어도의 인식도를 알아보는 연구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3 사회과과정에 영토교육 대단원이 있어 영토, 영해와 관련 독도, 영해기선,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을 중단원 및 소단원으로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어도관련 단원이 없고, 성취기준에도 이어도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교사와 학생들 모두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치고 있다.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지만, 출판사에 따라 참고내용으로 이어도를 다루는 내용과 비중이 제각각이다. 독도교육 내용처럼 위치, 면적, 역사, 생태환경, 가치 등으로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여도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어도를 교과서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현장에서의 이어도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지름길은 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선정하

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 문제점, 가능성을 점검하여 이어도 교육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병철, 「남중국해의 해양 갈등 연구」,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V』,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 \_\_\_\_\_, 「이어도 주변 해양수송로의 중요성과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V』,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 \_\_\_\_\_, 「동북아 해역 중국의 영토분쟁과 대응방안」,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V』,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 김태영, ‘한·중 해양관할권 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태일, ‘마라도 방문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과 기념공원 조성 타당성 분석’, 『이어도 연구』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김현수, 양희철, ‘한반도 주변 수역 대중 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이어도 연구』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김희열,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패권주의’, 『이어도 연구』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남호열,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1.
- 배진수, ‘센카쿠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이어도 저널』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송성대, ‘이어도 지명의 유래와 그 의의’, 『이어도 연구』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_\_\_\_\_,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이어도’, 『이어도 저널』 5,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심정보,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2008.

- 양덕순,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II』,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 유혜란, ‘일본 중등학교 영토교육’,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성우, ‘영토 분쟁의 분석적 이해와 과학적 대응’, 『이어도 저널』 5,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이용섭,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이어도’ 언급 안돼”, 중앙통신뉴스, 2012.10.9.
- 이준백, 「이어도 주변 식물플랑크톤 군집 동태 특성과 메타게노믹스 분석」,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II』, 국토해양부 국립 해양조사원, 2011.
- 이창형, ‘다오위다오(釣魚島) 관련 중국의 입장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어도 연구』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이하나, 조철기,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1.
- 정민정, ‘한·중간 이어도 문제의 해결방안’, 『이슈와 논점 제40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조성윤, 「일본의 이어도 실체 인식에 대한 연구」,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II』,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 \_\_\_\_\_, ‘영국 배의 소코트라 암초 발견과 측량의 역사적 의미’, 『이어도 연구』 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최병학, ‘독도 영유권에 비추어 본 이어도 해양관할권과 남해 해양주권’, 『이어도 연구4』, (사) 이어도 연구회, 2013.
- 한림화,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II』,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2011.
- 허은실, 남상준,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영토해양연구』 Vol.5, 동북아역사재단, 2011.

현경병, ‘국토의 남단 이어도’, 제2차 이어도전문가 간담회, 국회도서관, 2009.

황준호, ‘일본 중학교 모든 지리·사회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프레시안,  
2013.8.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시사점’, 『해양수  
산동향』 1261호, 2008.

## 부 록

###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내 중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학생 여러분들의 진솔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주도내 중학교 학생들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어도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방안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 설문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읽고 느끼시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강 문 석 드림



※ 다음은 학생 여러분들의 기초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해주세요.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학생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 ① 제주시 동 지역              ② 제주시 읍면 지역  
③ 서귀포시 동 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 지역

4. 학생이 초등학교까지 주로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 지역              ② 제주시 읍면 지역  
③ 서귀포시 동 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 지역  
⑤ 도외 지역(육지, 해외)





☞ 아래 문항(Ⅱ-3-1)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학생만 응답하세요.

Ⅱ-3-1.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느 교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으로 답변하여도 됩니다.)

- ① 국어과                      ② 사회과                      ③ 역사과                      ④ 과학과  
⑤ 음악과                      ⑦ 기타(                      )

☞ 아래 문항(Ⅱ-3-2)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만 응답하세요.

Ⅱ-3-2.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학교에서 배울 교과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②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다.  
③ 이어도가 별도로 교육할만한 정도의 가치가 없어서이다.  
④ 이웃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⑤ 이어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⑥ 기타(                      )

Ⅱ-4. 학교 도서관에 이어도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Ⅲ. 다음은 학교에서의 이어도 교육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를 해주세요.

문항 번호	이어도 교육 내용	인식 정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이어도의 역사	①	②	③	④	⑤
2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①	②	③	④	⑤
3	이어도의 국제법상의 지위	①	②	③	④	⑤
4	이어도의 지명 유래	①	②	③	④	⑤
5	옛 제주 사람들 전설에 나타난 이어도	①	②	③	④	⑤
6	제주 민요에 나타난 이어도	①	②	③	④	⑤
7	이어도 바다의 특징과 기후	①	②	③	④	⑤
8	이어도 바다의 수산 자원	①	②	③	④	⑤
9	이어도 바다의 해저 자원	①	②	③	④	⑤
10	안전 통행로(안전 수역)서의 이어도	①	②	③	④	⑤
11	EEZ(EEZ)과 이어도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1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역할	①	②	③	④	⑤
1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	①	②	③	④	⑤
14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국제법상의 지위	①	②	③	④	⑤
15	이어도와 독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정책	①	②	③	④	⑤
17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	①	②	③	④	⑤
18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	①	②	③	④	⑤
19	이어도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비교	①	②	③	④	⑤
20	국가 간 해양 분쟁의 해결 사례	①	②	③	④	⑤

※ 개념 설명

1) EEZ(EEZ) :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수역이 해당된다. EEZ은 영해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안국은 EEZ 내에서 각종 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 이어도의 해저암초의 기반위에 설치한 인공시설로서, 2003년에 완공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의 수온, 염분, 밀도, 해류, 파고, 풍향, 풍속을 자동적으로 관측하며, 사람이 장기간 상주하면서 해양, 기상 등을 조사하여 특히 태풍의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IV. 다음은 학교에서의 이어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를 해주세요.

문항 번호	이어도 교육 방법	인식 정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관련 교과목의 수업 시간 활용	①	②	③	④	⑤
2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①	②	③	④	⑤
3	이어도 전문 강사 초빙	①	②	③	④	⑤
4	이어도 동아리 운영	①	②	③	④	⑤
5	이어도 계기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이어도의 날 또는 이어도 주간 운영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게시판 또는 학급 게시판에 이어도 자료 게시	①	②	③	④	⑤
8	교장 훈화 또는 담임교사의 훈화를 통한 이어 도 교육	①	②	③	④	⑤
9	‘골든벨 올려라’ 방식의 이어도 관련 퀴즈 대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10	이어도 관련 제주 민요 부르기 대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이어도 관련 문학 대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12	‘과학의 날’에 이어도 해양종합기지 관련 글짓 기, 그림 그리기	①	②	③	④	⑤
13	관련 교과에서 이어도 관련 수행평가 실시	①	②	③	④	⑤
14	‘이어도’ 단어가 들어간 제주도내의 상호명 조 사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정책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문항 번호	일본과 중국의 해양 정책에 대한 인식	인식 정도				
		매우 잘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1	일본은 1987년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암초(침대 두 개 정도의 넓이)에 인공시설을 만들어 이를 기선으로 하여 EEZ(EEZ)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국토 면적(38만 km <sup>2</sup> )보다 넓은 약 42만km <sup>2</sup> 나 되는 바다를 독점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함하는 해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삼고,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과 관련된 옛 지역으로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인근 국가와 무력충돌을 하면서 해양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중국은 이어도 수역이 중국의 EEZ(EEZ)에 포함되는 곳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중국이 이어도 수역을 중국의 EEZ(EEZ)에 포함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지금의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이어도 교육에 대한 참여의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를 해주세요.

문항 번호	일본과 중국의 해양 정책에 대한 인식	실천 의향 정도				
		적극적 으로 참여 하겠다.	참여 하겠다.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1	이어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이어도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서적을 찾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이어도 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이어도에 관한 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이어도에 대하여 학교 선생님께서 물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이어도와 관련된 민요를 배우고 불러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이어도 전설이나 문학 작품을 읽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이어도 이름이 붙여진 건물이나 상호, 지명을 조사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 **The Analysis of Jeju Island-residi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Range and Actual Education Condition of Ieodo**

**Je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Moonseok Kang**

**Dec 2016**

This study was proceeded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Jeju island-residi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range and actual education condition of Ieodo, hence seek an education method.

In 2001, both Korea and China signed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took tentative measures in wat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cluding the 12 nautical miles territorial waters as joint fishery waters and decided on concluding an agreement on future bilateral exclusive economic zones; a continuous discussion regarding this had been taking place. China claims the island should be included in their own waters based on boundary delimitation by population and land proportions and on their unfounded historical facts, however, it turned out that such logic is not justifie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t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July 12, 2016.

Based on thi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school to offer structured education on Ieodo.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riteria for achievement in junior-high school social studies include territorial, territorial waters, and Dokdo-related contents, but contents relevant to Ieodo are not mentioned. The map of Ieodo that appeared in the atlas should be placed not only in a correct distance from Marado but also on the map of Korea, but it turns out that most textbook publishers do not mark so.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paper researches and activities of related organizations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recently, but not much interest was shown to be drawn in yet.

The results of surveys for junior-high school students in Jeju Island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degree of awareness of Ieodo,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gender and age, however, the degree of awareness of 9th graders was higher than that of 7th and 8th graders, and the students in Seogwipo area had higher degree of awareness compared to those in Jeju district area and town / village areas.

Second, although the awareness degree of leodo were relatively low and the related education from school field were very much lacking, it wa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think leodo education is necessary.

Third,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y heard of leodo were mostly TV and newspaper, while their channel being the school teacher were very less likely.

Fourth,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agree on executing leodo education in school, thinking the education is best done through class in relevant subject, and that subject relevance lies in social studies.